

영국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 일 고찰

정주신 충남대학교

연구요약

이 글에서는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전세계에 ‘퀸(Queen)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도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돌파했던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의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고찰하고자 했다. 문화콘텐츠가 대세인 오늘날, 이 논문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아름다운 대중음악 하모니를 남긴 퀸(Queen) 멤버 4인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의 의미에서 그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밴드 구성과 역할 및 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멤버들의 심리 및 인간관계 요인에 연구의 중점을 두되, 멤버들이 각자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적 요인과 부모 등 가족관계 요인을 부수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퀸(Queen)은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록그룹으로서의 탄생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대략 20년간 전세계를 다니면서 공연 흥행을 이뤄낸 밴드이다. 요컨대 개성이 강한 퀸(Queen) 멤버 4인들은 취향과 상상력에 따라 록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 하드록 등 전혀 다른 장르들을 조합한 실천적 구성으로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대중과의 교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록그룹 퀸(Queen)과 그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는 내면적인 영향으로부터 외형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산출된 연계성의 발로였다.

주제어 : 영국 록그룹 퀸, 퍼스널리티, 캐릭터, 퀸 신드롬, 보헤미안 랍소디, 프레디 머큐리

I. 서론

2018년 퀸(Queen)의 자선 공연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가 전세계적으로 개봉되어 인기를 끌면서 영국 록그룹 퀸(Queen)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 7월 13일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Ethiopia)의 난민을 돕기 위한 라이브 에이드(Live Aid) 자선 공연¹⁾에 참여한 퀸(Queen)은 20여 분 동안 메인보컬인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와 멤버들의 열연으로 퀸(Queen)의 명성을 되찾게 하고 살아있는 레전드(legend)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과거의 퀸(Queen) 팬심이 작용하여 오늘날 복고풍 빅히트를 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에 대한 전세계인의 뜨거운 성원과 열기는 한국에서도 관람객이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관객들의 자발적인 N차 관람은 물론, 퀸(Queen)에 대한 살아 있는 전설의 열풍을 이끌어 내 극장가를 넘어 사회·문화계의 새로운 신드롬(syndrome)으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보헤미안 랍소디>의 전례 없는 장기 흥행이 이어지자 퀸(Queen)에 대한 주제는 다큐멘터리, Live Aid 공연 실황이 여타 TV방송은 물론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다루어졌으며, 각종 음악 프로그램 역시 공연 무대를 재현해 보여줌으로써 <보헤미안 랍소디>와 퀸(Queen)을 향한 한국 관객들의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개봉은 한국에서 60대 전후 세대에게 퀸(Queen)에 대한 향수와 복고적인 선풍을 가져오는 동시에 퀸(Queen)과 그 메인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를 모르는 20대 전후 세대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켜 영화관에서도 퀸(Queen) 노래를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 등,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퀸(Queen)의 초기 앨범에 속하는 곡들은

1) 1985년 7월 '라이브 에이드' 자선 공연에서 퀸(Queen)이 부른 노래는 Bohemian Rhapsody, Radio GaGa, Hammer to fall,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그리고 Is this the World We Created 등 7곡이다.

프로그레시브 록, 하드 록, 헤비메탈의 영향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아레나 록과 팝 록을 조합하는 대중친화적인 곡으로 이뤄졌다.²⁾ 또한 1977년에 펴낸 퀸(Queen) 앨범 6집에 수록된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은 스포츠 이벤트의 테마곡이 되었다.³⁾ 이러한 현상은 퀸(Queen)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음악적 감흥과 축제의 장으로 내몰아 대중음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도 2000년대에 한국 아이들의 케이팝(K-pop)이 범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선풍을 일으킨 동력과 맥을 잇고 있는 연계선상과 맞닿는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신기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5년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의 Live Aid 자선 공연을 지켜본 수만 명의 대중들과 이 공연의 위성중계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약 19억 명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카리스마적인 퍼포먼스가 30여년 만에 영화로 되살아나 그 시대 퀸(Queen)의 존재를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켜 준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 그 자체 때문이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비틀즈(The Beatles)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20세기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영국 최고의 록스타 가수 중의 한 명이지만 AIDS로 45살에 단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세출 록그룹의 독보적 존재임을 각인시켰다. 지난 30년 동안 잊혀져왔던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세계는 그들의 매력에 매료된 많은 대중들에게 속 시원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이더(cider)와 같은 존재였다.

돌이켜보면 1970년에 탄생한 영국의 록그룹 퀸(Queen)의 출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가 촉매로 작용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주제로 대중음악을 안착시키는 요체가 되었다. 그리고 록의 등장과 풍요로운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인

2)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9/01/21).

3)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9/01/24).

4) 비틀즈가 1960년대 팝에 남긴 특징은 자율성과 야망이다. 자율성은 자기 충족적이며 자신들의 노래를 작곡하여 생산 가치를 결정한 것이고, 야망은 고급 및 저급 문화 공간의 분명한 고별에 도전하고 팝 음악을 예술처럼 취급한 것이다(사이먼 프리스 외 2009, 144).

구 증가는 청년문화와 대중음악을 대량 확대시켰다(사이먼 프리스 외 2009, 236-237). 혁명적이고 폭발력 있는 록그룹 퀸(Queen)의 탄생은 어느 한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적으로 팬들에게 미치는 대중음악의 성장과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프레디 머큐리가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이 되살아난 것은 록스타(rock star)가 아니라 전설(legend)⁵⁾이 되어 있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영국 록그룹 퀸(Queen)에 대한 본격 연구 논문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록그룹 퀸(Queen)의 전설(regend)로서 전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고 복고풍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세계인의 사랑과 신드롬을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없다는 것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아쉬울 뿐이다. 물론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 손에 꼽힐 정도의 책이 출간된 것은 자서전 내지는 앨범 목록 및 도서 판매와 관련(그레그 부룩스 외 2009; 라이 토마스 외 2019; 레슬리 앤 존스 2015; 정유석 2018; 오웬 윌리엄스 2019; 알폰스 카사스 2019; 해리 도허티 2019)이 있거나 저널리즘에 불과해 학술적 연구 가치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전세계적으로 혹은 한국인들, 특히 10, 20대부터 베이비붐세대인 50, 60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전설로 남아 있는 퀸(Queen) 4인 멤버들에 대한 연구로 진척시킬 필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퀸(Queen) 멤버 4인들에 대한 고찰은 1985년 Live Aid 공연이 2018년 영화로 재등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데서 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퀸(Queen)이라는 록그룹의 활동 배경과 대중음악과의 연계선상에서 성공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영국의 록그룹 퀸(Queen)의 음악이 영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팬들에게 신드롬의 복고 열풍을 몰고 온 레전드 경향을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에

5) "I won't be a rock star. I will be a legend." (나는 록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설이 될 것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들의 자립과 열정을 통해 대중음악의 성장을 가져온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는 요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밴드 구성과 역할 및 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멤버들의 심리 및 인간관계 요인에 연구의 중점을 두되, 멤버들이 각자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적 요인과 부모 등 가족관계 요인을 부수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멤버들의 심리 및 인간적 요인은 그들의 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연구 범위는 197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로, 즉 영국 록그룹 퀸(Queen)의 결성 과정과 그들의 앨범이 각종 차트에서 상위 순위로 자리매김하는 전개과정, 그리고 메인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으로 인해 퀸(Queen)이 소멸되기까지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지난 50년 동안 대중음악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발자취를 모색해보는 것은 최근 퀸(Queen) 4인 멤버들의 음악을 소재로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한국 관객도 1천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퀸(Queen)의 레전드(legend) 열풍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인 중대성과 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록그룹 퀸(Queen)처럼 대중음악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대중음악의 문화콘텐츠 분야로서의 그 연구 필요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중음악이 대중들의 가슴속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레전드의 기대치에서 보더라도 영국 록그룹 퀸(Queen)에 대한 연구는 많은 대중음악 팬들에게 퀸(Queen)과 그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바로미터라 볼 수 있다.

이 글은 영국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

와 캐릭터(character)의 상관관계를 일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제되는 요건은 퀸(Queen) 멤버 4인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록그룹에 영향을 미친 변수, 이를테면 환경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그리고 심리 및 인간관계 요인 등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특히 제2장은 퀸(Queen) 멤버 4인들이 퀸(Queen)을 결성하기 이전에 영향을 받은 환경적 및 가족관계 요인들의 측면에서 적요하고자 한다. 그 이후 제3장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제4장 퀸(Queen) 4인 멤버들의 캐릭터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 및 인간관계 요인이 퀸(Queen) 4인 멤버들의 뮤지션으로의 탄생과 성공, 해체의 수순을 밟는 소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은 제3장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제4장 퀸(Queen) 4인 멤버들의 캐릭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의 초점에 두고자 한다.

우선 브라이언 메이(Brian May)는 1947년 영국 런던에서 전자기사인 아버지 슬하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경우 가난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공부에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공부보다는 오히려 음악, 특히 록 밴드에 더 심취해 있었다. 브라이언 메이의 음악사랑은 7살에 기타 연주와 15살까지 지역 밴드, 15살에 어쿠스틱 기타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일렉 기타를 제작한 데서 알 수 있다. 브라이언 메이는 수제 기타를 만드는 집중력과 재능을 지녔으나, 선천적으로 내성적이며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듯이 자기 주도적인 기타 제작과 연습에 몰두하였다. 더구나 브라이언 메이는 어린 시절에 거칠고 빠른 곡을 즐겨 연주하는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와 더 섀도스(The Shadows)의 팬이었고 그들로부터 기타 연주에 큰 영향을 받았다.

브라이언 메이는 가족관계 요인으로 볼 때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한 만큼 아버지와 담배를 멀리했다. 그러나 퀸(Queen) 밴드 멤버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⁶⁾ 담배

를 즐긴 동료 프레디 머큐리, 로저 테일러, 존 디콘과 남달랐던 것은 담배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브라이언 메이가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탓이었다. 더욱이 브라이언 메이는 1980년대 후반 소심한 탓에 퀸(Queen)이 정상가도를 달릴 때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⁷⁾ 더욱이 브라이언 메이는 1974년 5월 첫 미국 투어 오프닝 이후 한 달 만에 쓰러졌고 간염 진단을 받아 그들의 남은 날짜를 취소해야 했다.⁸⁾ 브라이언 메이의 성격 취향은 담배보다는 맥주(기네스)와 리큐르(베일리스)를 좋아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마약이나 문란한 여성관계로 가족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처럼, 그 또한 네 자녀를 두었으나 재혼을 하는 등 가족관계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⁹⁾ 그러나 1970년 초 그룹 퀸(Queen)의 출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공연활동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다.

로저 테일러(Roger Taylor)는 1949년 영국 노퍽주 빈민가인 더싱엄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부모가 콘월주의 트루로로 이사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마이클 테일러가 공무원으로써 그곳에 발령 났던 터였다. 다만 로저 테일러는 부모가 이혼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학창시절, 불안정하고 매우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 로저 테일러는 7살에 친구들과 범블링오버 보이즈(The Bubblingover Boys)라는 작은 지역 밴드에서 기타를 배우며 로큰롤에 매료되기 시작했다.¹⁰⁾ 특히 그는 10대 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Bob Dylan)의 팬이었고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드러

6)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8%20%EB%A9%94%EC%9D%B4>(검색일: 2018/10/23).

7)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8%20%EB%A9%94%EC%9D%B4>(검색일: 2018/10/10).

8) Jump up to: a b Mark Hodkinson. Queen: the early years. Omnibus Press 2004(검색일: 2018/08/23).

9) 1977년에 크리스 멀런과 결혼하였으나 10년만인 1988년에 이혼하고, 2000년 배우출신 애니타 돕슨과 재혼하는 등 가정이 완만하지는 못했다.

10) “Roger Taylor.” <https://namu.wiki/w/%EB%A1%9C%EA%80%20%ED%85%8C%EC%9D%BC%EB%9F%AC>(검색일: 2018/10/13).

며 미치 미첼(Mitch Mitchell)을 롤 모델¹¹⁾로 삼아 학교에서 혼자 록(rocks) 스타를 흉내 내며 머리를 기르고 기타보다는 드러머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그는 드러머로서 드럼 세트를 제작하거나 드럼 부속품을 빌려 독학으로 드럼 연주를 하는 등, 뮤지션의 꿈을 키워나갔다.

로저 테일러는 유년기시절과 대학 때도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할 정도였지만, 그는 본래 재능 있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 예쁜 외모가 부담이 되었던지 수염을 기르거나 까칠한 이미지로 지내기 일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잘생긴 생김새나 이미지는 결혼생활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 번에 걸쳐 결혼을 반복하는 등, 삶의 어려움에 내몰리기도 했다.¹²⁾ 퀸(Queen) 시절에 로저 테일러는 가족의 어려움과는 달리 드러머로서 명성을 날리며 다양한 드러머 색션을 연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로저 테일러는 예쁜 외모 덕에 여장(女裝)도 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는 본명이 파록 불사라(Farrokh Bulsara)이며, 194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Zanzibar)에서 영국 총독부 공무원인 아버지 보미 불사라(Bomi bulsara)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들은 파시족(Parsee) 후손들이며 조로아스터(Zoroaster)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친척들이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히려 생전 자신들을 인도라는 출신 배경보다 파르시라는 걸 훨씬 강조하며 살았다.¹³⁾ 그런데 사람들은 파록(Farrokh)란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프레디(Freddie)란 별명을 많이 썼듯이, 뒷날 동창들은 록커로 성장한 프레디 머큐리를 파록이

11) "Roger's Drum Master Class(Music Works-BBC World Service, November 28, 1993)." Queen Online(검색일: 2018/09/23).

12) 로저 테일러의 첫 부인은 프랑스인 '도미니크'와의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고, 둘째 부인은 퀸(Queen)의 노래인 'Breakthru' 뮤비(MV)를 찍다가 눈이 맞아 동거한 '데비 랭(Debbie Leng)'이며, 세째 부인은 로저 테일러보다 22살 연하인 세리나 포트가이너이다.

13)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9/03/23).

나 프레데릭 이름보다 버키(bucky, 빠드렁니, Bucktooth)로 기억하였다.¹⁴⁾ 다만 그의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되는 빠드렁니로 인해 부끄러운 듯 치아를 가리는 것과 1980년부터 빠드렁니와 튀어나온 입을 가리려고 콧수염을 기른 것은 심리적 측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프레디 머큐리는 10살 때까지 잔지바르에서 살았으며, 그 후 16살이 되기까지 인도 봄베이(Bombay) 동남쪽에 위치한 판치가니(Panchgani) 내 성공회교회의 기숙학교에 다녔다. 봄베이 기숙사 합창부에서 활동할 때 그는 미술은 물론 스포츠, 즉 탁구와 복싱이 교내에서 실력하였듯이 음악에서도 보컬보다는 키보드에 관심을 뒤 교내 밴드 헥틱스(Hectics)를 결성하였다.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를 좋아하는 팬인 동시에 1962년 런던에서 결성된 록 밴드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의 보컬 Mick 재거(Mick Jagger)라는 ‘악동 이미지’의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가장 유명한 프론트맨(frontman)을 롤(role) 모델로 삼았다.¹⁵⁾ 이와 달리 그는 봄베이 시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던지 공부하는 것에 무척 괴로워했다. 마침내 1964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잔지바르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후 잔지바르로 돌아오자마자, 그 가족들은 파록 불사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인도에서 잠시 머문 뒤 영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였다.

프레디 머큐리는 18살 때 인도계 파시족으로 영국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받기 쉬운 아시안 인종이었고 영국으로 이민 온 혈통이었다. 더욱이 그는 대학생들과 밴드생활을 병행하면서도 퀸(Queen) 이전시기 밴드 멤버들 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성적이고 점잖은 성격이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런던 히드로 공항의 수하물 처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¹⁶⁾ 인고의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프

14)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 이름보다 버키(bucky)라는 별명을 부른 친구나 동창들은 프레디 머큐리 자체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꿈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를 우러러보았다(레슬리 앤 존스 2015, 272).

15)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9/03/23).

레디 머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연주곡을 만들며 록 밴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10대 때부터 꿈꾸었던 뮤지션이 되기를 고대해 왔다. 자신이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내성적이고 점잖은 성격에서 벗어나 언제나 웃고 밝은 파격적인 밴드 무대를 만드는 등, 이미지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퀸(Queen) 밴드에서 메인보컬로서의 유감없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적 토대는 가족의 가난과 이국에서 타향살이를 헤쳐나가는 그 의지에서 생긴 것이었다.

존 디콘(John Deacon)은 1951년 영국 중서부 레스터의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무척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그는 10살 때부터 지역 밴드에서 연주 경험을 쌓는 등,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11살 때는 스스로 신문배달을 해서 돈을 모아 연습용 어쿠스틱 기타를 사서 실력을 연마하는 등 비틀즈(The Beatles)를 비롯한 여러 밴드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을 멈출 수 없었다.¹⁷⁾ 그리고 14살 때 오포지션(Opposition)이라는 지역 밴드를 결성하면서 베이스 기타를 잡았다. 한편 존 디콘은 퀸(Queen)의 다른 멤버들과 달리 이혼이나 외도라는 가정적인 풍파도 없는 등, 가장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해왔다.¹⁸⁾

지금까지 퀸(Queen) 멤버 4인들의 출생과 자라온 환경 및 가족관계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체는 퀸(Queen)의 음악활동이 자의식적인 개인의 소질과 정체성이라는 퍼스널리티와 대외적인 그룹 활동의 이미지와 특성과 퍼포먼스라는 캐릭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이라는 행위자들 집합체인 그룹과 개인별 퍼스널리티(personality)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16)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9/01/21).

17) "John Deacon." <https://namu.wiki/w/%EC%A1%B4%20%EB%94%94%EC%BD%98> (검색일: 2019/01/28).

18) 존 디콘은 베로니카와 1971년부터 교제하던 중 1975년 결혼해 퀸(Queen) 멤버 중 가장 많은 6명(5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리티란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 4인들의 선천적이거나 사회화를 통해 나타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정체성과 그 자아적 성격을 보여주며 의식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들 멤버들은 각자 자신들의 록그룹을 결성하는데 기여하고 그 그룹에서 성공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퀸(Queen)이라는 그룹에 동참한 뮤지션들이다. 그룹 퀸(Queen)은 공연에서 각각의 퍼스널리티 성향이 동시에 뭉쳐져 캐릭터라는 이미지를 보여줘 대중들에게 공감받을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퍼스널리티란 자신이 내면적으로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인성이나 품성을 밴드 구성체를 통해 공동의 음악적 목표를 위해서 놓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의식 형성과 목표 지향이 공연무대에 올려지기까지 일궈내고 도전하는 일련의 즉자적 과정을 의미한다. 즉 그 자신이 처해있는 주변상황에 대처하여 개인의 내면화를 통해 즉자적이며 독자적인 목표추구에 적응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이라는 행위자들 집합체인 그룹과 개인별 캐릭터(character)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이 그동안 지녀온 개성과 소질에 의한 내면적 의식을 퍼스널리티적 관점에서 점차 강화하여 외연적으로 무대나 공연장에서 대중들을 위해 펼쳐나가는 과정 그 자체로 퍼포먼스를 돋보이는 캐릭터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캐릭터는 소설이나 연극 등 작품 내용이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 연출로 표출된 인물의 설정이나 주인공 혹은 동등한 인물들의 가치나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목적이나 이미지 창출을 전달하는 행위가 대중의 성향이나 작품 공연에 맞게 문화적인 혹은 상업적인 시각표현의 주체 혹은 인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퍼포먼스 그 자체가 캐릭터라 볼 수 있다.

영국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은 어릴 때부터 짝을 티워온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대학생 시절 전후기부터 음악과 악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뤄내며 공연하는 밴드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1971년 2월 퀸(Queen)의 결성과 1991년 11월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까지를 연구범위로 한, 4인조 퀸(Queen)의 형성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이들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

구분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프레디 머큐리	존 디콘
출생년도	1947년	1949년	1946년	1951년
매력	소질 자립심	기타, 작사, 작곡	보컬, 작사, 작곡	베이스, 작사, 작곡
	독학 뮤지션	독학 뮤지션	독학 뮤지션	독학 뮤지션
포지션	리드기타, 보컬	드럼, 보컬	보컬, 피아노, 키보드	베이스기타
멤버들의 악기	수제(手製) 기타, 레드 스페셜(Red Special) 손수 제작	드럼 베이직 키트, 야미하 드럼, 루딕(Ludwig) 드럼, 질전(Zildjian) 키트	그랜드 피아노(피아니스트), 통기타, 펜더 텔레캐스터	펜더 프레시전 베이스(Fender Precision Bass)
악기의 특징	레드 스페셜 신시사이저의 특별한 사운드, 영국 은화 6펜스 동전 사용, 금속음 지향의 다양한 소리 컨트롤 연주	드러머로서 드럼 세트를 제작하거나 드럼 부속품 빌려 독학으로 드럼 연주 등, 뮤지션 꿈 키움	퀸 밴드에서 메인보컬로서의 유감없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적 요인, 가족의 가난과 타향살이 해체감	돈을 모아 연습용 어쿠스틱 기타를 사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카페에 연주
환경적 요인	영국 런던에서 전자기사인 아버지 슬하에 태어났으나, 가난한 가정환경	영국 노퍽주 더싱엄에서 공무원인 아버지 슬하에 태어남, 중산층 이상의 가정, 3살 때 부모가 콘월주의 트루로 이사, 다만 부모 이혼으로 가정생활 원만하지 못했음	인도계 파시족으로 영국에서 차별과 혐오를 받기 쉬운 아시아인 인종이자 영국으로 이민 온 혈통	영국 레스터 지역의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무척 조용한 성격
가족적 요인	4자녀를 두었으나 가족 관계에서는 두 번 결혼하는 등 실패작, 퀸 멤버 중 유일한 비흡연	결혼 후 자신은 세 번에 걸쳐 결혼 반복하는 등, 가정 불안	영국 식민지였던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서 태어난 특이한 출생, 가족들이 급하게 영국으로 이주하다 보니 집안 사정	다른 멤버들과 달리 이혼이나 가정적인 풍파 없었음, 6명(5남 1녀)의 자녀 둔 안정적인 가정환경

	자		어려움	유지
대학 전공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서 천체 물리학 전공	런던 호스피털 메디칼 칼리지 치의대생에서 음악생활로 인해 생물학으로 전공 바꿈	런던 에일링 아트 칼리지에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	런던 첼시 칼리지에서 전자공학 전공
대학 시절 전후 아르바이트	대학 졸업 후 젊은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게 수확 가르침	스마일 밴드 동료인 파룩 불사라와 켄싱턴 시장에서 옷가게 운영	비행기 화물칸에서 짐을 옮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고의 시절 보냄, 로저 테일러와 켄싱턴 시장에서 옷가게 운영	11살 때 스스로 신문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연습용 어쿠스틱 기타 사서 연습
멤버들 오디션 참여 배경	스마일 밴드로 대학생 활하며 독자적 리더 구축	브라이언 메이와 팀 스타켈 앞에서 오디션으로 스마일 밴드 합류	정체성 콤플렉스에 어려움을 겪던 파룩 불사라가 팀 스타켈 대신으로 스마일 밴드 전격 합류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 및 프레디 머큐리 앞에서 오디션 후 합류
퀸 결성 이전 멤버들의 그룹 활동	‘1984’ 밴드 조직, 1984 밴드 공연을 학업과 병행, 1967년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공연에서 서포트 밴드로 출연, 1968년 스마일(Smile) 밴드 결성	10대 때 학교에서 혼자 록(rock) 스타를 흉내 내며 머리를 기르고 기타보다는 드러머로 활동, 1956년 범블링 오버 보이즈 지역 밴드 조직, 1960년대 중반 지역 밴드 리액션(The Reactions) 조직, 1968년 스마일(Smile) 밴드를 결성	소년시절 인도 봄베이 기숙사 합창부 활동과 교내 밴드 헥틱스(Hectics) 결성, 1960년대 후반 영국 리버풀 출신 아마추어 밴드 아이벡스(Ibex) 활동, 이후 레키지(Wreckage)와 사워 밀크시(Sour Milk Sea) 밴드를 거침, 1970년 4월 스마일 전격 합류, 1971년 초 스마일 밴드를 퀸 밴드로 개명	10살 때부터 지역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 경험, 14살 때 오포지션(Opposition) 지역 밴드 결성, 디콘(Deacon) 밴드 명으로 공연, 1971년 대학 2학년 때 퀸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
멤버들의 롤 모델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와 더 섀도스(The Shadows)의 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Bob Dylan)의 퀸,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드러머 미치 미첼(Mitch Mitchell)이 롤 모델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열렬 팬, 존 레논(John Lennon)의 퀸, 믹 재거(Mick Jagger)를 롤 모델로 삼음	비틀즈(The Beatles) 음악을 즐기며 록밴드의 뮤직션 꿈 가짐

<p>멤버들의 특징</p>	<p>7살에 기타 연주와 15살까지 지역 밴드, 15살에 어쿠스틱 기타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일렉 기타를 제작,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기타를 살 돈이 없어 아버지와 함께 수제(手製) 기타, 레드스페셜 (Red Special) 제작, 일류대생들의 뮤지션 선택,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p>	<p>잘생긴 몸으로 귀여움 독차지할 정도, 본래 재능 있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 다만 예쁜 외모가 부담이 돼 수염 기르거나 까칠한 이미지로 지내기 일쑤, 드럼 세트 제작하거나 드럼 부속품 빌려 독학 드럼 연주, 뮤지션의 꿈을 키움, 일류대생들의 뮤지션 선택, 드러머 겸 작곡가</p>	<p>무척 화려하고 밝은 성격,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지냄, 남들과의 차이를 가진 빠드렁니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콧수염 기름, 또 콧수염도 빠드렁니와 튀어나온 입을 가리려는 심리적 측면, 일류대생들의 뮤지션 선택, 성(性)적 지향 양성애자 콤플렉스, 비유럽인으로 영국 언론의 가십거리, 음악시장에서 당대의 뮤지션 동료들과의 인간적인 교류, 밴드의 불사조 신화 및 4인 멤버들의 별자리 점성술 상장을 조합하여 퀸 심벌 로고 제작, 보컬 및 작곡가</p>	<p>11살 때 연습용 어쿠스틱 기타로 음악 연습, 흥미와 재능이 출중해 고장난 라디오 고치거나 다른 기기 조립하는 등 기계공작에 관심, 일류대생들의 뮤지션 선택, 베이티시트 겸 작곡가</p>
----------------	---	---	--	---

출처: 필자가 정리

Ⅲ.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의 퍼스널리티

퀸(Queen) 4인의 멤버들은 모두 음악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길이 있는 일류대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록 뮤지션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자신들의 퍼스널리티가 음악지향적인 유전자를 가진 모태(母胎) 멤버들이었기에 가능했다. 이 장에서는 퀸(Queen) 4인의 퍼스널리티, 즉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인격과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록그룹의 선배세대들을 따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방향성과 음악성의 본보기가 되거나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자 롤(role) 모델을 쫓고 의식적으로

꿈을 키워온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퀸(Queen) 멤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 선택과 음악에 대한 재능은 퀸(Queen) 그룹으로 탄생하기까지 멤버들 간의 그룹 이합집산(離合集散)의 결과이나 그들의 소질과 잠재력이 퍼스널리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1. 브라이언 메이

브라이언 메이는 자기 집의 벽난로를 지탱하고 있던 100년 묵은 마호가니 나무로 기타 바디를 만든 ‘벽난로 기타’를 만들었는데, 이는 정규 부품으로 제작해 낸 기타를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었다. 레드 스페셜(Red Special)¹⁹⁾에 쓰일 픽업 부품도 처음에는 본인과 아버지가 제작했지만, 그 픽업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범즈(Burns)사가 제작한 트라이 소닉(Tri-sonic) 픽업을 구매해 달았다.²⁰⁾ 그래서 현재의 그 소리가 나온 것이 다름 아닌 수제(手製) 기타로 제작한 레드 스페셜이었다. 아버지는 레드 스페셜 기타도 만들어 주셨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락밴드를 하겠다며 느닷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였다.²¹⁾ 허나 후에 퀸(Queen)이 성장하고 성공한 뒤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밴드 생활을 인정하였다.

브라이언 메이는 신시사이저(synthesizer)의 특별한 사운드를 위해서는 줄을 자주 끊어 먹지 않게 피크 대신 영국 은화 6펜스 동전을 사용하였다. 신시사이저는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트롬본 및 피콜로, 더 나아가 각종 악기의 음색을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고 변경 혹은 합

19) 레드 스페셜(Red Special)은 마호가니 나무의 진한 적갈색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24프렛짜리 세미드 솔리드식 보물로 제작비 8파운드를 들여 만들어졌으며, 다른 어떤 기타로도 소리낼 수 없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트롬본과 피콜로, 신시사이저 소리 등 독특한 기타 톤의 질감을 지녔다(정유석 2018, 8-9).

20)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8%20%EB%A9%94%EC%9D%B4>(검색일: 2018/11/20).

21)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8%20%EB%A9%94%EC%9D%B4>(검색일: 2018/09/18).

성하여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동일한 케이스로는 맥시코의 펠소 동전을 사용한 지지 탑(ZZ TOP) 밴드 리더인 빌리 기븐스(Billy Gibbons)가 있다. 동전은 손에 쥐기 쉽고 단단하기 때문에 금속음 지향의 다양한 소리를 내주어 컨트롤하며 연주하기에 편했다. 브라이언 메이는 은화 6펜스 동전으로 피킹한 기타를 치기 때문에 금속 가루가 묻어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기타리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결국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1964년 말 보컬리스트이자 베이스스트인 팀 스태펠(Tim Staffell)과 1984 밴드²²⁾를 조직하고 1965년 임페리얼 대학에 입학 후 학업과 1984 밴드 공연을 병행하였으나, 이 밴드는 1968년 초 음악적 견해차로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다만 1984 밴드 경력의 절정은 1967년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가 브라이언 메이의 대학에서 공연할 때 서포트 밴드로 출연한 것뿐이었다(정유석 2018, 9). 그러나 브라이언 메이는 1968년 중반 팀 스태펠과 임페리얼 대학 게시판에 미치 미첼(Mitch Mitchell)이나 진저 베이커(Ginger Baker) 타입의 드러머 오디션 구인 광고를 낸 결과,²³⁾ 치의대생인 로저 테일러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의기투합한 이들 3명이 1968년 스마일(Smile) 밴드를 결성하였으며(Mark Hodgkinson 2009, 118), 1970년 초 밴드 이름이 스마일에서 퀸(Queen)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브라이언 메이는 퀸(Queen) 멤버의 기둥이자 리더로서 활동하였다.

2. 로저 테일러

로저 테일러는 7살인 1956년에 범블링오버 보이즈라는 지역 밴드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이후 1960년대 중반 고향에서 리액션(The Reactions)이라는 지역 밴드를 만들며 드러머 혹은 보컬로서 본격적

22) 브라이언 메이 자신이 만든 밴드 ‘1984’는 인도 태생의 영국 소설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제목에서 차용한 명칭이다.

23)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8/12/01).

인 음악 커리어를 쌓았다. 로저 테일러는 대학교 재학 중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향에서 리액션 밴드 소속으로 공연을 하였다. 리액션 밴드는 당시 푼돈 수준의 유료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이 200~300명씩 운집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²⁴⁾ 그럼에도 지방 당국은 밴드의 공연을 금지시켜 결국 밴드가 1968년 여름에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다. 그 후 로저 테일러는 사람이 많은 런던의 대학가에서 음악 활동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로저 테일러는 런던 호스피털 메디컬 칼리지(London Hospital Medical College) 진학과 전공을 치의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꾼 것도 열정적인 음악활동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1968년 10월 로저 테일러는 임페리얼대학 게시판에 공고를 통해 드러머를 구하고 있던 밴드 스마일의 브라이언 메이와 팀 스타펠에게 오디션(audition)을 보게 되었고, 그 즉시 스마일 밴드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스마일 밴드 3인 멤버는 임페리얼 대학에서 열린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오프닝 무대 공연에 초대받고 열정있는 연습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 이후 무대 공연이 없자 브라이언 메이는 대학 졸업 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단에 섰으며, 로저 테일러는 대학 휴학 중 팀 스타펠의 룸메이트인 파룩 불사라(Farrokh Bulsara)와 켄싱턴(Kensington)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었다(정유석 2018, 12).

요컨대 로저 테일러는 지역 밴드 리액션에서의 활동 역량과 나중에 퀸(Queen)에서 보여주는 우월한 보컬&코러스 실력은 고향에서 공연을 하며 명성과 실력을 쌓아온 덕분이었다. 그런데 1970년 봄 스마일 그룹의 보컬인 팀 스타펠이 스마일을 탈퇴하고 자신의 음악 스타일과 맞는 험피봉(Humpy Bong) 밴드로 옮겨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팀 스타펠의 룸메이트였고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정체성 콤플렉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룩 불사라가 팀 스타펠을 대신해서 스마일 밴드에 전격합류하게 되었다.

24) “Roger Taylor.” <https://namu.wiki/w/%EB%A1%9C%EC%A0%80%20ED%85%8C%EC%9D%BC%EB%9F%AC>(검색일: 2018/09/16).

3. 프레디 머큐리

스마일 밴드에 전격 합류한 파록 불사라는 그가 갈망하던 스마일 밴드의 메인보컬로 활동하게 되면서 파격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팀 이름을 스마일에서 퀸(Queen)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냈다. 이후 존 디콘이 베이스스트로 참여하면서 퀸(Queen) 밴드 생활이 4인 멤버들로 구성돼 완전체의 밴드로 꾸러졌다. 4인 멤버들 간에 소질과 개성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록밴드라는 공동체로서의 음악활동은 프레디 머큐리로 하여금 퀸(Queen)에 소질과 애정으로써 푹푹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파록 불사라도 잔지바르(Zanzibar) 출생의 지역성을 떨쳐버리고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일일신하며 영국 록그룹의 메인보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퀸(Queen) 멤버로 등장하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퍼스널리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었던 원천적인 요체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프레디 머큐리는 핵틱스에서 정열적인 피아노를 다룬 경험으로 보컬이 공석인 영국의 리버풀 출신의 새로운 밴드인 아이벡스(Ibex)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프레디 머큐리는 아이벡스가 해체된 후 6개월 동안 아이벡스에서 재정비된 랙키지(Wreckage)와 사워밀크시(Sour Milk Sea)라는 2개 밴드를 더 거쳤지만 밴드활동은 미진했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는 1970년 4월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의 스마일 밴드에 보컬인 팀 스타펠이 떠난 스마일에 의기투합도 하였다. 애초 프레디 머큐리는 스마일 팬이었고, 그들에게 좀 더 정교한 무대와 녹음 기술로 실험을 하도록 격려했다.²⁵⁾ 팀 스타펠은 런던 서부에 있는 에일링 아트 칼리지(Ealing Art College)에 다니는 동안 인도 파르시 후손인 잔지바르 출신의 동료 학생인 파록 불사라와 친구

25)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8/08/12).

가 되었다.²⁶⁾ 결국 팀 스타펠이 1970년 밴드 험피 붕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면서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터전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일(Smile)의 열렬한 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만나면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었고, 퀸(Queen) 밴드가 그의 비전을 만들어낸 곳이 되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에일링 아트 칼리지에 다닐 때, 그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뮤지션으로서의 열정은 여러 밴드를 오갔지만 결국은 퀸(Queen)에 안착하는 행운을 맞았다.

둘째, 프레디 머큐리는 잔지바르에서 태어난 특이한 비유럽인으로서 유별나게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다녔다.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향수병에 외롭고 소심했던 그가 대학생이 되고 밴드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깔깔거리며 웃고, ‘달링’ 같은 상투적인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런던의 일링 칼리지의 명물로 비춰졌다. 더 특이한 것은 남들과의 차이를 가진 태생적인 빠드렁니와 1980년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자체가 프레디 머큐리의 강한 인상을 청중들에게 어필시킬 수 있었지만 일종의 심리적 갈등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퀸 초기에 글램 락의 영향을 받아 긴 머리, 검은 매니큐어, 검은 눈화장, 나비 날개같은 옷, 몸에 딱 붙는 타이즈(발레복)를 주로 입었다.²⁷⁾ 그것은 퀸(Queen) 메인보컬만의 캐릭터로서의 화려하고 다양한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여성과 관련해서는 약점으로도 작용하였다. 다만 그가 록밴드 퀸(Queen)에서 이런 성공 방식은 오히려 무척 화려하고 밝은 성격을 넘어 상의를 벗어 던져버리거나 다양한 색상 무늬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데서 장점으로 작용했다. 프레디 머큐리는 어떤 공연할 것 없이 청중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퀸(Queen)의 메인보컬로서의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26) “Freddie Mercury’s complex relationship with Zanzibar.” BBC(검색일: 2018/07/28).

27)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8/09/23).

셋째, 퀸(Queen) 시절에는 그의 성(性)적 지향 콤플렉스를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었지만 언론이나 외부에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개인사를 밝히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 원래 프레디 머큐리 본인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성격이었으나, 언론과 친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특히 언론에의 노출을 꺼려했다. 인종 측면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유럽인이 아니고 잔지바르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영국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기 일쑤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콤플렉스에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퀸(Queen)이 완전체로 형성될 무렵인 1973년 초 프레디 머큐리와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의 여친 메리 오스틴(Mary Austin)과의 만남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프레디 머큐리로 하여금 함께 사귀며 동거에까지 이르게 했다. 프레디 머큐리는 1975년 무렵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음악적 원천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래도 프레디 머큐리는 언론의 비평과 성적 지향에는 무관심한 채 오히려 밴드의 완전체인 퀸(Queen)을 통해서 끼와 흥이 넘치는 캐릭터를 발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퀸(Queen)의 메인보컬로서 양성애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 그 자신에게는 음악성을 단축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1976년 프레디 머큐리는 그의 동성애이자 이발사였던 남성 친구 짐 허튼(Jim Hutton)과의 불륜에 대해 메리 오스틴에게 알리면서 그녀와 소원해졌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돈은 영국에서의 외로움에 가치관이 흔들려 성적 지향의 양성애자로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가치와 정체성 마인드가 강한 영국에서 언론들은 성(性) 정체성 때문에 퀸(Queen)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게이(gay) 의혹과 사생활을 파헤치려는 찌라시를 양산해냈다. 태생적 정체성이 영국 식민지였던 잔지바르 출생자로서 양성애 성향을 한 프레디 머큐리의 양성애자로서의 퀴어(queer)적인 행동 자체를 언론은 가십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음악의 장르와 기법인 클래식과 발라드, 오페라와 아카펠라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넷째, 프레디 머큐리가 퀸(Queen)의 로커로 성장하기까지는 내면적 성격이 규정되는 퍼스널리티가 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가 록은 물론 팝이나 오페라 및 발레, 성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음악시장에서 다른 멤버들과의 인간적인 교류 때문이기도 했다.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성은 엘튼 존(Elton John),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존 레논(John Lennon)과의 외향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시되었다. 프레디 머큐리가 AIDS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절친 가수 엘튼 존이 자주 병문안을 한 것도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한 예였다. 엘튼 존은 절친 프레디 머큐리가 음악적 능력으로 볼 때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프레디 머큐리가 영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더 유명한 뮤지션이자 로커로서 성장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엘튼 존은 퀸(Queen)의 앨범이 트라이던트 오디오(Trident Audio)社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트라이던트와 결별시키고 1975년부터 3년간 엘튼 존의 매니저였던 존 리드(John Reid)를 퀸(Queen)의 매니저로 보냈다(Mark Hodgkinson 2009. 116).²⁸⁾ 존 리드가 퀸(Queen) 매니저를 맡았을 때를 기점으로 엘튼 존은 프레디 머큐리와 절친한 사이로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와도 더불어 인간적 친분도 있었다. 또한 프레디 머큐리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1980~1982년 마이클 잭슨이 프레디 머큐리의 팬임을 자처해서 퀸(Queen)의 공연을 여러 차례 찾기도 했다. 마이클 잭슨의 조언은 퀸(Queen)의 8집 수록곡 <Another One Bites The Dust>(1980)가 베스트셀러가 돼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존 레논을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존재(unique and the one-off)로, 파파로티를 세계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가장 위대한 뮤지션으로 생각했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술 파티에서 존 레논의 노래를 기타로 치며 부르며 밤새도

28) 퀸(Queen)은 트라이던트 오디오社와 초창기 음반 제작·출판 등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계약 자체가 불공정해서 결별(1973~1975)하고, 엘튼 존(Elton John)이 보내준 존 리드(John Reid)를 매니저(1975~1978)로 대체하였다.

록 술 마시고 인적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파바로티의 공연 직후 자신과 동행한 스타프에게 세계 최고의 목소리라고 호평했다.²⁹⁾ 이런 주변 뮤지션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영향과 롤 모델 등의 형성은 프레디 머큐리가 퀸(Queen) 밴드 무대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건인차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다섯째, 프레디 머큐리는 퀸(Queen)의 완전체로 본격적 활동채비를 하기 위해서 스마일 밴드에서 퀸(Queen)으로 제안하고 개명하기까지 멤버들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 고집스럽게 관철시켰다.³⁰⁾ 그는 일링 칼리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미술학도답게 그가 좋아하는 대영제국 왕실 문장을 연상케 하는 밴드의 불사조 신화 및 뒤늦게 존 디콘이 합류한 완전체로서 4인 멤버들의 별자리(zodiac signs) 점성술 상징을 조합하여 퀸(Queen) 심벌 로고를 만들었다.³¹⁾ 프레디 머큐리는 퀸(Queen)의 상징을 우아하고 강하게,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매우 상징적이고 영국 왕실답게, 그리고 최고 밴드의 자존감과 우월성 등을 명백하게 표현했다. 이런 심벌 로고의 형성으로 퀸(Queen) 멤버들은 그들 특유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팬들을 무대공연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존 디콘

존 디콘은 대학교에 다니며 다시 밴드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이 직접 멤버를 모집해 무명의 밴드를 만들었지만, 딱 한번 공연하고 밴드는 해체했다. 밴드 멤버들의 역량이 존 디콘에 비해 떨어져

29)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8/08/12).

30) Jump up to: a b c d e “Queen Logo.” Famouslogos.net(검색일: 2018/07/25).

31) 4인의 별자리는 사자 두 마리(존 디콘과 로저 테일러), 암 게 한 마리(브라이언 메이), 처녀자리 두 마리(프레디 머큐리)의 요정 두 마리이다.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9/01/25); “Queen Logo.” Famouslogos.net(검색일: 2018/04/28).

서 일회용 밴드에 불과했다. 밴드 이름도 없다시피 해서 존 디콘의 이름을 따서 디콘(Deacon)이라는 밴드 명으로 공연했다. 이 후 존 디콘은 음악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고 여러 밴드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중 디스코 축제장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소개로 퀸(Queen)의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를 알게 되었다.³²⁾

때마침 퀸(Queen)이 완전체가 아니고 베이스스트 부재로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도 베이스스트를 구하던 도중이었었다. 이들 멤버들은 퀸(Queen)의 공식이던 베이스스트에 존 디콘을 오디션을 통해서 결정했다. 1971년 존 디콘이 베이스스트로 영입되면서 퀸(Queen)의 구성원은 완성체가 되었다.³³⁾ 존 디콘은 첼시 칼리지(Chelsea College) 전자공학 2학년 재학 중인 1971년에 퀸(Queen)의 멤버가 되었다. 그래서 1971년 7월 2일, 퀸(Queen)은 런던 외곽의 서리 대학에서 4인의 클래식 라인업에서 그들의 첫 쇼를 공연했다(Queen 2009, 26). 이후 존 디콘은 1973년에 퀸(Queen) 밴드가 그들의 유명한 데뷔 첫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멤버들과의 호흡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존 디콘은 워낙 성격이 조용하고 겸손함을 지녀, 개성과 엘리트 의식이 강한 멤버들과 퀸(Queen)의 공연을 하는데 조화와 운용의 묘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존 디콘은 밴드 퀸(Queen)의 4번째 멤버로서 기존 퀸(Queen) 3인 멤버들 속에 베이스스트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곡을 써가며 무대를 연출해야만 하는 운명을 맞았다. 반면 퀸(Queen)으로서는 존 디콘의 내성적인 성격이 팀 운용에 밑받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베이스 연주 실력과 전자기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존 디콘이 안성맞춤이었다.

존 디콘의 캐릭터 및 이미지는 베이스스트로서의 뛰어난 실력과 자존감, 손이 빠른데다가 핑거 주법을 사용하는 베이스스트, 피아노 음과 더불어 곡의 전개를 이끌고 있는 베이스스트, 퀸(Queen)의 살림과 재정 일을 도맡을 정도의 멤버들 간 우정 어린 신뢰, 무대 전면에 나

32) "John Deacon." [https://en.wikipedia.org/wiki/John_Deacon\(rjatorldf\)](https://en.wikipedia.org/wiki/John_Deacon(rjatorldf))(검색일: 2018/11/23).

33)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8/11/12).

서지 않는 겸손한 베이스로서의 포지션, 많은 록밴드 베이스리스트들과 같은 공통된 애티튜드 등에 있다. 게다가 존 디콘은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와 메인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전면에서 쇼맨십을 부릴 때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베이스리스트의 조화를 꾀하였다. 더욱이 존 디콘은 미국 흑인 성향의 소울 음악을 도입, 창조적이고 틀을 깨며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던 밴드 퀸(Queen)에게 작곡가이자 베이스리스트로서 손색이 없었다.

<표 2> 퀸(Queen)의 연도별 앨범 발매와 그 특징

년도	발매	앨범 제목	비고
1973	1집	퀸《Queen》	트라이던트 스튜디오사와 계약 英國 앨범차트 24위
1974	2집	퀸《Queen II》, 싱글《킬러 퀸Killer Queen》	프레디 머큐리가 작사·작곡
1974	3집	시어 하트 어택《Sheer Heart Attack》	
1975	4집	오페라의 밤《A Night at the Opera》	EMI에서 출판, 英國 앨범차트 1위, 《Bohemian Rhapsody》(영국 싱글차트 9주 1위)
1976	5집	경마장에서의 하루《A Day at the Races》	《Somebody to Love》 등 수록곡
1977	6집	세계의 뉴스《News of the World》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1978	7집	재즈《Jazz》	
1980	8집	더 게임《The Game》	美國 빌보드 차트 1위
1980	9집	플래시 고든《Flash Gordon, OST》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1982	10집	핫 스페이스《Hot Space》	
1984	11집	작업들《The Works》	《Radio Ga Ga》, 《I Want to Break Free》
1986	12집	일종의 마법《A Kind of Magic》	
1989	13집	기적《The Miracle》	
1991	14집	풍자《Innuendo》	프레디 머큐리의 초췌해진 시기
1995	15집	천국에서 만듦《Made in heaven》	英國 앨범차트 1위 《Heaven For Everyone》 영국 싱글차트 2위 《A Winter's Tale》 영국 싱글차트 6위

출처: 필자가 정리 *참고로 퀸(Queen) 앨범은 1973년부터 1975년 초반까지 영국 런던의 트라이던트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고, 그 이후는 EMI에서 출판되었다.

IV. 영국 록그룹 퀸(Queen) 멤버들의 캐릭터

퀸(Queen) 멤버들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5집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뮤지션으로의 자질과 인격이 형성된 퍼스널리티로부터 밴드를 구성한 후 음악적으로 퍼내는 앨범과 무대에서의 공연이 펼쳐져 돋보이는 캐릭터를 주요 앨범과 그 앨범에 수록된 곡목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퀸(Queen) 멤버들의 캐릭터와 밴드의 특성은 각각 포지션 별로 분할되었다. 브라이언 메이의 예술가 기질이나 치밀한 기타 플레이, 로저 테일러의 폭발적인 드러머와 최고음의 보컬, 존 디콘의 베이스로서 안정된 리듬감,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환상적인 고음과 카리스마적인 무대 장악 및 퍼포먼스 등이 그것이다. 퀸(Queen)은 헤비한 글램 록 팬 층을 주요 타깃으로 정조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즉 프로그레시브 록과 하드록, 헤비메탈 양식을 결합한 감미로운 포크나 재즈에 이르기까지 장르적 스펙트럼을 록스타의 이미지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

1. 브라이언 메이

퀸(Queen)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브라이언 메이는 커다란 키에 곱슬머리로 단장하고 기타를 다루는 기타리스트에 불과했다. 다만 밴드의 보컬리스트인 프레디 머큐리가 불세출의 보컬 능력과 카리스마가 넘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를 지녔기에, 브라이언 메이는 천착했던 리프 중심의 하드록 플랫폼 캐릭터를 보였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진 그만의 레드 스페셜 기타 음색은 신시사이저라는 우월한 소리의 특정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카피할 수 없었다. 브라이언 메이는 프레디 머큐리와 무대 앞에 위치해서 퀸(Queen) 밴드를 리드하지만, 그의 기타 연주 실력은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로도 손꼽힐 정도였다. 따라서 브라이언 메이는 특이한 개성으로 기존의 고정관념과 기타 연주의 틀을 깨면서 기타와 피아노 연주 외에도, 퀸(Queen)의

대표곡 가운데 상당수의 하드록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초월해 작곡하는 등 익숙한 재능을 보였다.

브라이언 메이는 프레디 머큐리보다 먼저 1973년 7월 6일 퀸(Queen) 1집 데뷔 앨범 수록곡 <Keep Yourself Alive>란 데뷔 싱글 앨범을 냈다. 그 자신과 퀸(Queen)의 공식 앨범인 이 곡은 브라이언 메이가 버전을 최고의 테이크로 뽑았을 정도로 퀸(Queen) 앨범을 대표하는 오프닝 곡, 하이라이트 곡, 라이브 레퍼토리 곡이 되었다(정유석 2018, 33). 브라이언 메이는 지난 1970년 4월에 프레디 머큐리가 스마일 밴드 가입 후 밴드 명이 퀸(Queen)으로 바뀔 무렵에 결성된 3인조 밴드 상태에서 어쿠스틱 기타로 이 곡을 작곡했었다. 그리고 1973년 7월 13일 헤비메탈과 프로그레시브 록을 중심으로 한 퀸(Queen)의 1집 앨범을 출시,³⁴ 7월 18일 퀸(Queen) 이름으로 첫 공연에서 브라이언 메이는 4곡을 작곡하고 직접 부르기도 했다. 실제 브라이언 메이의 독특한 기타 톤에서 나온 사운드는 신시사이저(synthesizer) 음으로 혼동될 정도였다. 브라이언 메이가 퀸(Queen) 앨범 7집 전까지 밴드가 신시사이저 없이 특수한 사운드를 낸 것은 그가 영국 은화 6펜스 동전으로 사용한 레드 스페셜 기타 톤에서 나온 사운드의 일환이었다.

사실 로저 테일러가 주로 서브보컬을 맡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브라이언 메이는 퀸(Queen) 이전 때부터 학업과 병행하면서 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다. 또한 백킹보컬 뿐만 아니라 리드보컬이나 메인보컬을 맡을 정도로 출중한 보컬리스트였다.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부른 곡 중에 유명한 곡 중 하나가 15집 수록곡 <Too Much Love Will Kill You>인데, 여기서 브라이언 메이 보컬버전은 프레디 머큐리의 고음버전에 비견될 만큼 매우 고무적이었다. 브라이언 메이는 라이브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와 이 곡을 듀엣으로 부른 적도 있다.³⁵ 다른 유명 가수들

34)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8/05/18); "Heritage award to mark Queen's first gig." bbc.co.uk(검색일: 2019/02/12).

35)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

이 파바로티와 같이 불렀다가 굴욕을 맛보곤 했던 것과는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메이는 원곡자의 감성을 살려 오히려 파바로티보다 더 존재감 있는 가창력을 보여 보컬로서도 그 당당함이 돋보였다.

브라이언 메이의 피아노 연주 실력도 꽤나 좋은 평판을 얻었다. 원래 프레디 머큐리가 들어오기 전(前), 퀸(Queen) 이전의 밴드 스마일(Smile) 시절에 브라이언 메이는 건반을 담당했었다. 프레디 머큐리가 들어오고 나서 퀸(Queen)이 결성된 후 프레디 머큐리가 메인보컬 및 키보드를 담당하게 되지만, 여전히 서브 키보드로도 활약하였다. 브라이언 메이가 라이브 공연에서 피아노를 담당했던 곡으로는 1집에 수록된 <Doing All Right>, 8집에 수록된 <Save me>, 5집에 수록된 <Teo Torriatte> 등이 있다. 특히 <Doing All Right>은 브라이언 메이가 피아노 파트를 전담하여 피아노 팝송, 어쿠스틱 기타 간주, 헤비 메탈, 발라드 順으로 전개, 잔잔함과 폭발력과 감미로움으로 마무리한 곡이다. <Save me>에서 브라이언 메이는 프레디 머큐리의 절규에 가까운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게 하기 위해서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신시사이저 등 모든 악기를 동원하였다. <Teo Torriatte>는 브라이언 메이가 일본 팬들에게 플라스틱 피아노 발라드 곡과 더불어 프레디 머큐리의 피아노 연주를 곁들여 헌정한 곡이다.

2. 로저 테일러

퀸(Queen)이 1973년 그룹 형성을 위해서 브라이언 메이 중심의 자체적인 오디션을 거쳐 4명의 멤버로 구성됐지만, 데뷔 초기에 무명시절에도 존재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잘생긴 외모 스타 로저 테일러 덕분이었다. 지금에도 시대적 음악의 취향과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션의 성공 법칙은 보편적으로 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외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연습과 조율 및 곡 선정에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퀸

(Queen)으로서는 로저 테일러의 캐릭터인 잘생긴 드러머를 영입한 것은 행운이었다. 게다가 로저 테일러는 뮤직비디오에 여고생 여장(女裝)으로 분장하거나 드럼뿐만 아니라, 팀파니 등의 북 종류와 징을 비롯한 탬버린 등 모든 타악기, 유능한 작사와 작곡 실력 및 발라드를 비롯해서 팝 성향의 로큰롤 분야를 다재다능하게 다뤘다.

로저 테일러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못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자로 오해한 경우가 있어 대학생 때 수업을 길렀다.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 바로바로 항의하며 때로는 욕을 하는 성격으로 까칠한 심리적 부담의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쾌활하고 장난기가 있기로 유명했다. 11집 수록곡 <I Want To Break Free> 뮤직비디오에 등장할 당시, 35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여고생 역할의 여장³⁶⁾으로 분장해 미모와 발랄한 연기가 돋보였다. 특히 분장은 프레디 머큐리가 일상사하는 일인데, 이처럼 로저 테일러가 분장했다는 자체가 놀기를 좋아하는 프레디 머큐리로서는 더욱 동료애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로저 테일러는 1981년까지 프레디 머큐리 못지않게 공연에서 옷통을 벗고 드럼을 치기도 했던 바, 드러머로서 의외로 잘생긴 캐릭터로서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저 테일러의 포지션은 단순히 드러머가 아닌, 예술가 기질의 퍼커셔니스트(percussionist), 즉 타악기 연주자였다. 게다가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팝 성향의 로큰롤 분야를 지향하면서 대중의 관심영역을 확장하였다. 로저 테일러는 자신의 몫을 넘어 퀸(Queen)의 전자악기와 드럼머신을 활용한 녹음도 가능했다. 그 스스로 악기 실력은 모두 독학한 것이며, 작곡 실력 또한 퀸(Queen) 멤버 중 프레디 머큐리 다음이었다. 퀸(Queen)의 6집 수록곡 <Fight from the inside>이 로저 테일러의 대표적인 곡으로, 작곡에 드럼 연주는 물론 그루브(groove)한 기

36)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검은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쿿수염의 30대 주부, 존 디콘은 흰 머리에 모자를 쓴 할머니, 브라이언 메이는 미장원에서 고데(ゴテ)를 하는 아주머니, 로저 테일러는 노랑머리에 나비머리 핀을 한 10대 소녀로 각각 여장으로 분장하였다.

타 리프와 펑키(funky)한 베이스 연주 등 원맨쇼 밴드 곡처럼 활기를 북돋으며 연주하였다.

로저 테일러는 퀸(Queen)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비롯해서 팝 성향의 로큰롤 분야를 지향했으며 아카펠라, 록, 팝, 하드록, 오페라록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 최고의 인기밴드 실력자이자 훌륭한 드러머였다. 퀸(Queen) 음악의 특징이 발라드를 비롯해서 팝, 하드락, 오페라락 등 워낙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다보니, 빠른 속주나 테크니컬한 연주기기 보다는 공연장 분위기에 알맞게 대중과 호호하며 대중을 압도하는 멤버는 드러머 로저 테일러의 몫이었다. 1981년 몬트리올 공연에서의 드럼 솔로, 3집 수록곡 〈Now I'm Here〉 막바지 부분 등에 화려한 드럼 솔로를 가미하여 드러머로서의 기교를 보였다. 로저 테일러는 1986년 7월말 헝가리 부다페스트 라이브 등의 12집 앨범 투어에서는 야마하 드럼을 사용했을 뿐, 스마일 시절부터 루딕(Ludwig) 드럼에 질전(Zildjian) 심벌 조합으로 키트를 구성해 사용하였다.³⁷⁾

로저 테일러는 퀸(Queen)의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11집에 수록된 〈Radio Ga Ga〉, 12집에 수록된 〈A Kind of Magic〉 등을 연주 및 작사와 작곡하였으며, 4집에 수록된 〈I'm in Love with My Car〉, 5집에 수록된 〈Drowse〉, 7집에 수록된 〈Fun It〉, 8집에 수록된 〈Rock It〉 등 그가 작곡한 몇몇 곡에서는 리드보컬을 맡기도 했다.³⁸⁾ 그는 프레디 머큐리가 메인보컬인 경우 브라이언 메이와 함께 백그라운드 보컬을 겸했다. 예컨대 4집에 수록된 〈Bohemian Rhapsody〉의 오페라 섹션에 나오는 초고음의 '갈릴레오'³⁹⁾ 라이브에서는 드럼을 치는 가운데 코러스로서 프레디 머큐리의 보컬을 고음 파트를 원키로 뽑아줬다.⁴⁰⁾ Live

37) "Roger Taylor." <https://namu.wiki/w/%EB%A1%9C%EC%A0%80%20ED%85%8C%EC%9D%BC%EB%9F%AC>(검색일: 2018/11/23).

38) "Roger Taylor." <https://namu.wiki/w/%EB%A1%9C%EC%A0%80%20ED%85%8C%EC%9D%BC%EB%9F%AC>(검색일: 2018/08/13).

39)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는 16세기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현대과학의 아버지이나, 〈Bohemian Rhapsody〉속에서 나오는 '갈릴레오'는 프레디 머큐리가 팀 멤버 브라이언 메이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우주물리학 전공해 온 것을 상징했다(레슬리 앤 존스 2015, 155).

Aid 공연 후반부에 6집 수록곡 〈We Are The Champion〉에서도 프레디 머큐리가 힘에 겨워 몇몇 고음파트를 놓칠 때, 로저 테일러는 브라이언 메이와 함께 훌륭한 백보컬로 커버해주었다.

로저 테일러는 허스키한 보컬 음색도 탁월하여 미성인 프레디 머큐리와 목소리 궁합이 매력적이었다. 굉장히 걸걸한 음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데, 가성의 경우 3옥타브 후반대를 넘나드는 코러스를 라이브에서도 빠짐없이 소화해냈다. 또한 로저 테일러는 〈Bohemian Rhapsody〉에서 계속 드럼을 치면서도 아카펠라나 오페라 화음부분에서 테너 파트를 불렀다. 또한 A#1-E6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서 음역대만 놓고 보면 프레디 머큐리보다 넓은 음역대를 지니고 있으며,⁴¹⁾ 라이브나 앨범을 듣다가 찌르는 듯한 고음이 나오면 그건 전부 로저 테일러의 목소리다.

3.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는 록 음악 역사상 최고의 보컬리스트로서, 발라드, 오페라틱, 소울, 디스코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감성을 록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3집 수록곡인 싱글 〈Killer Queen〉은 영국 차트에서 2위에 올랐고(David Roberts 2006), 빌보드 핫 100에서 12위에 오르며 그들의 첫 미국 히트곡이 되었다(Joel Whitburn 2006). 4집 앨범 타이틀곡 〈Bohemian Rhapsody〉는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실험적인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히트를 기록했다. 프레디 머큐리의 보컬과 라임, 리듬 감각 없이 쿵쿵따 드럼 소리뿐인 6집 수록곡 〈We Will Rock You〉나 기타 사운드 없이 베이스 리프로 진행되는 8집 수록곡 〈Another One Bites the Dust〉와 같은 어려운 곡을 완벽한 노래로 만들었던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프

40)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아카펠라나 오페라부분의 화음 부분과 찌르는 듯한 고음부분에서 테너 파트는 당연히 로저 테일러 몫이다.

41) “Roger Taylor.” <https://youtu.be/OgEb6OnC75c>(검색일: 2018/09/20).

레디 머큐리의 다채로운 보컬은 폭넓은 퀸(Queen)의 음악 세계로 이 음매나 빈틈없이 완전무결한 형태로 표현해 낸 점이 혁명적이었다. 특히 퀸(Queen) 4인 멤버들의 음악적 성향이나 서로 다른 개성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엄청나게 큰 창조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레디 머큐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통에서 벗어나 기존 틀을 깨는 음악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프레디 머큐리의 보컬은 미성과 비성 등 구강공명을 적절히 넘나드는 가성 방식이었다.⁴²⁾ 프레디 머큐리의 아마추어 시절 초창기 앨범이나 퀸(Queen)의 1집 앨범은 멜로디에 상관없이 미성 덕분에 노래가 살아난 케이스다. 프레디 머큐리가 보컬로서 역량이 두각⁴³⁾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대 초의 대학 시절부터였다. 어릴 때 인도 봄베이 합창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던 그였다. 그 뒤로 퀸(Queen)이 결성될 즈음에는 혼자서 열심히 공들여 연습을 했던 것이 이미 테크닉적으로 거의 안정된 보컬로 성장한 것이었다.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거친 록 뮤지션 이미지를 가진 프레디 머큐리는 화산처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로서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⁴⁴⁾를 갖추었으며 미성(美聲)과 가성(歌聲)에 다가 탁성(濁聲)까지 발성하는 풍부한 역량을 가진 불세출 경지에 이른 혁명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러므로 프레디 머큐리는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혼재되는 미성으로 분위기를 압도하거나, 혹은 파워가 넘치는 마성(魔聲)의 목소리를 지닌 메인보컬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프레디 머큐리는 구강 포먼트(oral formant)를

42) “Freddie Mercury.”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968> (검색일, 2018/06/20).

43) 프레디 머큐리는 언제나 뮤지션, 연주자가 우선이었고, 록스타로서의 위치가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퀸(Queen) 멤버들 중에서 인기에 가장 덜 민감했으나, 항상 완벽한 음악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사람이었다(레슬리 앤 존스 2015, 206).

44) 퀸(Queen)의 인기를 좌우한 요인은 무엇보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휘어잡은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존재감에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는 항상 관중을 압도했으며 그의 카리스마에 힘입은 퀸(Queen)의 무대는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활력으로 가득했다(정일서 2010, 807-808).

최대로 드라마틱한 탁성을 유도했다.⁴⁵⁾ 그는 곡에 따라 그 목소리 표현을 마성 혹은 탁성, 가성 혹은 미성 등을 어떻게 내야할지를 고민하면서 술과 담배를 즐겼다. 그러다가 성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소리를 내는 가성이든 쉰 목소리의 쥐어짜는 탁성이든 되는 대로 뽑아내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젊을 때 아름다운 미성이었다가, 1980년대 들어 성대 질환과 성대 폴립이 생기고 줄담배를 피우면서 피치를 맞추기가 어려워져 음색이 변한 창법으로 바뀌었다. 그는 1980년부터 콧수염을 처음 기른 것이나, 노래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은 물론 콘서트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프레디 머큐리는 자신의 창법의 변화로 성구(聲區)⁴⁶⁾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소리낼 수 있는 영역에서 성대(vocal cords, 聲帶)가 벌어지고 갈라지는 탁성의 소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프레디 머큐리는 목이 심하게 아플 때조차 좀 쉬라는 담당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목에 결절이 생겼어도 노래를 불렀다. 퀸(Queen)이 10집의 실패와 1983년의 공연 중지와 휴식기를 가진 것도 그 이유였다. 예컨대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15집 앨범에 수록된 <Mother Love> 곡을 자신이 걷기가 어려워지자 보드카 한잔을 들이켜고는 높은 고음의 후렴구까지 소화해 냈으니, 이는 뮤지션으로 참으로 처절하고도 애절한 작업임에 틀림없다(정유석 2018, 352-353).

프레디 머큐리의 컨디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서 1984년 퀸(Queen) 11집 발표와 함께 퀸(Queen)은 다시 세계 주요도시 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전 런던 공연에서 10집에 수록된 <Under Pressure> 싱글 곡의 3옥타브 라(A5) 파트⁴⁷⁾를 4옥타브 파(F6)⁴⁸⁾로 올려서 불렀

45)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8/08/28).

46) 성구(聲區)는 사람 목소리의 세 가지 다른 음색, 즉 낮은음, 가온음, 높은음의 계열로 나뉜다.

47) 3옥타브 라(A5)파트는 프레디 머큐리(퀸)의 <Under pressure>, 머라이어 캐리의 <Fly Like A Bird>, 소찬휘의 <Hold me now>, 신지(코요태)의 <Touch me> 등의 노래에서 알 수 있다.

48) 4옥타브 파(F6) 파트는 머라이어 캐리의 Fantasy, 이진성(먼데이 키즈)의

으나 고음이 전성기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만큼 11집 투어도 고난의 역경이었다. 1984년 마지막 공연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썬 시티(Sun City) 공연은 미성의 목소리가 아닌 탁성의 목소리로 불렀다. 이 공연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다행히도 <Bohemian Rhapsody>를 Live Aid급으로 불러냈다. 그런데 1985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인 그 전설의 Live Aid 공연을 앞둔 시점에 5집에 수록된 <Somebody to Love>의 까다로운 곡을 부르다 목에 혹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1월 중순 브라질 리우에서 역대급 관중이 모인 공연에서는 그 어렵다던 <Somebody to Love>를 전성기급으로 노래할 정도로 회복됐다.

결국 1985년 7월 Live Aid에서는 2옥타브 후반대의 고음을 너무나도 편한 표정으로 내지르며 역대급 무대를 생중계로 보여주어 퀸(Queen)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이끌었다. 프레디 머큐리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유명한 발라드는 대표적으로 <Love of my life> 곡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10집에 수록된 몇몇 디스코 곡들, 솔로 활동곡인 성악 등이 미성 위주였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탁성까지 쓰면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성과 탁성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프레디 머큐리는 14집에 수록된 <Don't try so hard>에서는 미성을 내었고, 12집에 수록된 <Gimme the prize>에서는 굉장히 강한 하드록 분위기에 맞는 탁성을 보여줬다. 그는 또 11집에 수록된 싱글 <Under Pressure> 등에서 아름다운 가성을, 그러나 12집에 수록된 <One Vision>에서의 3옥타브 솔(G5)부분⁴⁹⁾과 6집에 수록된 <It's Late>에서의 4옥타브 E6부분⁵⁰⁾ 등에서는 괴성 샤우팅을 보여주었다.

<그대 뿐이죠>, 조유진(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박기영의 <호랑나비> 등의 노래에서 볼 수 있다.

49) 고음노래의 대표인 <She's Gone>이 3옥타브 솔(G5)로, 모든 남성이 고음의 노래를 소화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예컨대 김범수 가수의 진성 음역대는 0 옥타브 파#(F#2)에서 3옥타브 솔(G5), 가성 음역대는 3옥타브 라(A5)까지로, 라이브 기록도 거의 없는 편이다.

50) 예컨대 박완규의 경우, 전성기 시기에는 본인의 타고난 목소리 자체가 미성이었기 때문에 4옥타브 레(D6)~미(E6)까지 올라갔으나, 현재는 3옥타브 솔(G5)까지는 올릴 수는 있다.

4. 존 디콘

존 디콘은 베이스 재능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베이스 실력만큼은 손가락 주법과 피크 주법을 모두 사용한 대표적 베이스스트의 뮤지션이었다. 보편적으로 존 디콘은 퀸(Queen) 멤버 중에서 피아노음과 더불어 곡의 전개를 이끌고 있는 독보적인 베이스기타 연주자였다. 그가 베이스 리프 짜는 능력은 1970년대 퀸(Queen)의 음악이 피아노 멜로디가 강조되고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던 밴드임에도 베이스의 표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특히 프레디 머큐리 곡인 5집 수록곡 <The Millionaire Waltz>은 프레디 머큐리의 유려한 곡들에서 베이스음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곡에 녹아들어 있는 걸 보면, 존 디콘의 베이스 센스가 가히 곡의 분위기에 걸맞게 고풍스러운 분위기까지 날 정도로 빛났다.⁵¹⁾

존 디콘은 퀸(Queen) 멤버 가운데 20곡이 못되는 가장 적은 수의 곡을 썼으나 미국 흑인 문화인 소울(soul)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베이스스트답게 흑인 음악적인 소울 음악으로 관심영역을 확장시키며 퀸(Queen)의 음악을 세련되고 빛나게, 창조적이며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존 디콘은 작곡가로서도 퀸(Queen) 밴드 커리어 사상 2번뿐인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곡 중 하나인 8집에 수록된 <Another One Bites the Dust>을 작곡했다. 이 곡은 존 디콘의 베이스와 더불어 어쿠스틱 기타, 오버드라이브가 살짝 거틴 일렉 기타의 앙상블을 사용했다(정유석 2018, 182). 그리고 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 곡이 1980년 펑크 록 장르의 주요 히트 싱글이 되었다. 마이클 잭슨의 추천으로 발매되자마자 미국의 흑인들에게 소울 음악이 먹혀들었다.⁵²⁾ 이 곡은 퀸(Queen) 노래 중 <Bohemian Rhapsody> 보다 못한 판매지만, <We Are the Champions>보다 많이 팔린 곡이었다.

존 디콘은 퀸(Queen)의 멤버들인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 등

51) "John Deacon." <https://namu.wiki/w/%EC%A1%B4%20EB%94%94%EC%BD%98> (검색일: 2019/01/18).

52)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 (검색일: 2019/01/28).

이 5집에 수록된 〈Somebody to Love〉의 아키펠라 부분에서 백킹보컬 혹은 서브보컬에 참여하나, 베이스스트로 만족했다. 그만큼 존 디콘은 퀸(Queen)에서 유일하게 보컬로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지 않고 자신이 작곡한 것에 대해 백킹보컬이나 서브보컬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룹 초창기에는 현란한 핑거/피킹 연주장면도 많이 나오고, 특히 1집 수록곡인 〈Liar〉 라이브에서는 프레디 머큐리와 듀오 보컬을 연출하기도 했다.⁵³⁾ 그러다가 1986년 퀸(Queen)의 마지막 투어 공연에서 존 디콘은 낮은 목소리의 코러스를 넣는 등, 발전된 무대매너를 보여주었다. 11집 수록곡 〈Radio Ga Ga〉 라이브에서 그는 웹블리 공연처럼 립싱크가 아니라 은근히 몸을 한 바퀴 도는 움직임과 낮은 목소리의 코러스를 보여줬다.

그런데 존 디콘은 밴드 내에서의 베이스스트 역할과 달리 멤버 중에서 전자기기를 다루는 기술로, 보조적으로는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 전자기기 기술을 사용하는 일렉트릭 건반 악기, 그리고 기타와 드럼 연주 등을 담당했다. 이점은 존 디콘으로서는 캐릭터로서의 변화와 베이스스트로서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다.⁵⁴⁾ 즉 존 디콘 자신이 작곡한 곡을 직접 일렉트릭 피아노를 쳐서 퀸(Queen)의 4집에 수록된 〈You're My Best Friend〉를 녹음하거나, 8집에 수록된 〈Another One Bites the Dust〉,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Under Pressure〉에서의 메인 혹은 리듬기타 연주, 10집에 수록된 곡 〈Staying Power〉 녹음 때 텔레캐스터 연주, 12집에 수록된 〈One Vision〉 뮤직비디오에서 드럼을 친 것 등 많은 재능을 보여주었다.

53) "John Deacon." <https://namu.wiki/w/%EC%A1%B4%20EB%94%94%EC%BD%98> (검색일: 2018/08/27).

54) "John Deacon." <https://namu.wiki/w/%EC%A1%B4%20EB%94%94%EC%BD%98> (검색일: 2019/01/13).

<표 3>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의 캐릭터

구 분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프레디 머큐리	존 디콘
퀸 역할	리드기타, 작사, 작곡	드러머, 작사, 작곡	메인보컬, 작사, 작곡	베이스, 작사, 작곡
멤버들의 특징	마르고 큰 키 체형, 장발의 곱슬머리	잘생긴 외모로 비주얼 담당	비유럽인, 빼드렁니, 콧수염	기계공작
멤버들의 캐릭터 개념	대담함, 특이함, 틀을 깨는, 창의적, 자기주도적, 이상적 스타일	전통에서 벗어남, 창의적, 자기주도적, 매력적, 활기복돋음	전통에서 벗어남, 창의적, 소맨십, 특이한 개성, 혁명적, 폭발적, 대중친화적 스타일	잔잔한 개성, 창의적, 안정적 스타일
악기의 종류	수제 기타, 레드 스페셜, 랜드 피아노	루딕(Ludwig) 드럼과 야마하 드럼, 드럼과 팀파니 등의 북 종류, 징과 탬버린 등 모든 타악기	키보드, 랜드 피아노	펜더 프레시전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리듬기타, 일렉트릭 피아노
악기의 연주	독특한 음색,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신시사이저, 기타나 피아노 연주	그루브(groove)한 기타 리프, 핑키(funky)한 베이스 연주, 만능 타악기 주자인 퍼커셔니스트	메인로컬로서 키보드나 랜드 피아노 연주 병행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 일렉트릭 건반 악기, 기타, 드럼, 리듬 기타 연주, 텔레캐스터 연주
보컬 캐릭터 유형	백킹보컬 혹은 리드보컬, 메인보컬, 키보드 담당, 천착했던 리프 중심 하드록 플랫폼의 캐릭터, 기타리스트로서의 우월한 캐릭터	허스키한 음색, 높은 음역대, 백킹보컬, 리드보컬, 발라드, 팝 성향 로큰롤 지향, 아카펠라, 록, 하드록, 오페라록 등 다양한 장르	메인 보컬, 맑은 가성, 성량 풍부, 오페라 창법, 괴성 샷우팅, 감성적인 발라드 보컬, 발라드, 오페라틱, 소울, 디스코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감성을 선율적인 발라드와 록의 영역	베이스 보컬, 낮은 목소리의 코러스, 미국 혹은 유럽의 소울 작곡 캐릭터
멤버들의 고음 정도	원곡자의 감성을 살려 파바로티 보다 더 존재감 있는 가창력 보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버전이 비견될 만큼의 고음 버전, 폭발적인 헤비메탈	3옥타브와 4옥타브 후반대를 넘나드는 코러스, 허스키한 보컬 음색, 아카펠라나 오페라 화음부분에서 테너 파트 A#1-E6 음역대, 오페라 색션에 나오는 초고음의 '갈릴레오' 목소리	미성과 가성 및 탁성 혹은 마성 자유자재 사용, 2옥타브 후반대 고음, 3옥타브 솔라(A5) 파트, 3옥타브 솔(G5), 4옥타브 파트(F6) 고음, 4옥타브 E6 괴성 샷우팅 등 절규에 가까운 폭발적인 가창력	노래 부르지 않거나, 낮은 목소리의 코러스, 백킹보컬

무대 매너	기타리스트 및 백보컬로서의 핵심적 팀 리더	드러머 및 백보컬로서의 든든함	메인보컬로서의 화려함, 폭발적, 카리스마,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거친 록 뮤지션 이미지	베이스 스프로서의 발전된 근한 몸돌림
환경적 요인	가정의 어려움, 가정불화와 이혼, 2번의 결혼	가정의 어려움, 가정불화와 이혼, 3번의 결혼	가정의 어려움, 비유럽인, 성적 정체성 문제, 양성애자	안정적 가정
인간 관계적 요인	지미 헨드릭스, 파파로티	엘튼 존	엘튼 존, 마이클 잭슨, 존 레논, 믹 제거, 파파로티	엘튼 존
멤버들의 장점	하드록, 발라드 등 여러 장르의 작사·작곡, 예술가 기질, 피아노 연주 실력과 서브 키보드 활약, 파파로티와 듀엣 공연	여러 장르의 음악 연주 및 작사·작곡에 유능함, 전자악기와 드럼머신을 활용한 녹음, 킨에서 최고음을 내는 뮤지션, 팬심 사로잡는 외모	발라드와 하드록 및 팝 유형의 곡 선정,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발레 같은 장르 등의 작사·작곡, 파워풀한 볼세출의 보컬,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 테크닉적으로 안정된 보컬로 성장, 긴 머리, 검은 매니큐어, 검은 눈화장, 나비 날개 같은 옷, 몸에 딱 붙는 타이즈(발레복)	베이스와 쿠스틱 기타의 앙상블, 소울 유형의 작사·작곡, 일렉트릭 피아노를 직접 쳐서 녹음
멤버들의 단점	두 번 결혼하는 등 가족 관계 실패작,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세 번 결혼하는 등 가족관계 실패작, 부끄러워하거나, 욕도 하는 까칠한 모습	목에 결절이 생기거나, 성대 질환과 음색 변화, 탁성(濁聲)의 목소리, 언론의 가십거리, 양성애, AIDS	카메라 잡히는 회수적음, 키보드와 무관함

출처: 필자가 정리

V. 결론

이 글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전세계에 '퀸(Queen)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도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한 관객이 공감했던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과 그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문화콘텐츠가 대세인 오늘날, 보컬리스트, 리드 기타리스트, 리듬 기타리스트, 베이스스트, 드러머 등의 역할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노래와 전세대를 아우르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를 남긴 퀸(Queen) 멤버 4인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의 의미에서 그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첫째,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는 각자 어릴 때부터 록음악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진해온 만큼 각자의 역할과 멤버로서의 소중함을 간직하고자 했다. 이런 의리가 있는 배경은 20년 동안 수많은 팬들로 하여금 퀸(Queen)을 다시 찾게 하고 폐창을 낳게 하는 레전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었다. <표 1>과 <표 3>은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이들 표에서 나타나는 바,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특성은 환경적이고 가족적인 요인이 심리 및 인간적 관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멤버들의 강한 의리와 음악성을 무기로 내세워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퀸(Queen) 4인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퍼스널리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팀 멤버로서의 음악적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은 큰 창조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퀸은 4인 모두 스타일이 다른 음악적 취향을 가진 탁월한 작곡가였으며 존 디콘을 제외하고는 보컬로서의 능력이 겸비된 다양한 음악성을 지녔다. 이들의 음악적 장르와 양식을 초월하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적 장인정신은 팬들로 하여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록커로서의 레전드(전설)로 남게 만들었다. 예컨대 아카펠라, 오페라, 포크, 힙합, 팝, 가스펠, 헤비메탈, 하드록, 글램록, 디스코 댄스, 로커빌리, 소울 등에 피아노나 해몬드 오르간, 신시사이저와 같은 건반악기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작용해 록뮤직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셋째, 퀸(Queen) 4인이 품어내는 음악의 다양성과 폭넓은 스펙트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팀의 하모니에 걸맞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보이는 상관관계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는 리프 중심의 하드록 플랫폼을,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팝 성향의 로큰롤을,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는 선율적인 발라드를, 베이스리스트 존 디콘은 미국의 흑인 음악적인 소울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돋보이게 했다. 퀸(Queen)의 음악은 단지 즐기는 차원을 넘어 멤버들이 서로가 빛나도록 보완하고 울동과 악센트를 넣어 때로는 폭발적이고 낭만적이게, 때로는

대중적이며 매력적이게, 때로는 지적이며 과장되고 방만하게, 때로는 혁명적이거나 민주적이고, 더 나아가 심오하고 이상적으로 꿈의 날개를 펴 예술가의 기질을 담은 음악을 분출시켰다.

넷째, 퀸(Queen)의 모든 음악들이 오랫동안 세계인들에게 애청되고 식지 않은 신드롬을 보유한 레전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중음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발자취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퀸(Queen) 멤버들의 록 음악을 향한 열정, 독학에 의한 연습, 어려운 환경의 극복, 자기방식에 의한 악기 선택, 그들 롤 모델에 의한 영향, 메인보컬의 무대장악, 쇼 연출력에 대한 감각 등이 퀸(Queen) 4인으로 하여금 록커와 뮤지션으로서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퀸(Queen) 멤버들 간의 기존 음악적 틀을 깨는 모험과 창의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과 대학시절의 절박함을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퀸(Queen) 멤버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의 의미는 멤버들 개체로서의 자생적이고 단체로서의 공생적 관계가 제대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자생적이라 함은 멤버 4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 후 자신의 악기에 맞게 노력하고 열성을 보여준 점이다. 공생적이라 함은 팀 멤버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적 애정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런 자생적이고 공생적인 기틀 위에서 밴드는 지향하고자 했던 음악적 전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멤버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가 자생적인 음악적 소질과 공생적인 열정의 협력으로 그룹 활동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퀸(Queen) 멤버 4인 모두 자립과 독학에 의한 록커로서의 준비와 퀸(Queen) 형성과정에서의 내부적 오디션을 통해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멤버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연관성에 기여한 것이었다. 이들이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인의 멤버들이 작사와 작곡이 가능했으며, 여러 악기를 다루거나, 장르 또한 유사

하고 협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경쟁력 있는 대중음악으로 창조하고 변화를 꾀한 그 자체가 퀸(Queen)으로서는 당시 절대절명의 한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공연 무대에서 대중의 마음 얻기, 음악적 재능 펼치기, 독창적 음악 시도하기, 프로정신의 겸손함, 음악적 협력 등을 통해 남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대중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곱째, 퀸(Queen)의 보컬에서는 프레디 머큐리가 메인보컬을 하고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가 서브보컬을 해 그 자체가 상호간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룹 퀸(Queen)은 1970년 초부터 1990년 초까지 20년 동안 건재하면서 15집에 이르는 앨범을 발표하는 등,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메인보컬인 프레디 머큐리가 무대를 장악하고 록 밴드 쇼를 하듯이 분주하게 마이크를 휘저으면서 여러 섹션을 결들인 장식과 옷통을 벗은 육체미를 과시하며 관중의 흥미를 유발해 왔지만, 퀸(Queen)의 히트곡의 대부분은 4인의 멤버에 의한 합작품이었다. 멤버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던 요체는 구성원들 각자의 재능과 열정의 결과였다.

결국 개성이 강한 퀸(Queen) 멤버 4인들은 취향과 상상력에 따라 록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 하드록 등 전혀 다른 장르들을 조합한 실천적 구성으로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대중과의 교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록그룹 퀸(Queen)과 그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는 내면적인 영향으로부터 외형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산출된 연계성의 발로였다. 어린 시절 음악에 대한 탐구와 의지력이 퍼스널리티 형성 과정과 더 나아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 활동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얻는 캐릭터로 상징화되기까지 4인 멤버들의 독창적 음악 전개와 뮤지션으로서의 성장은 일류 밴드로 정상에 서고자 했던 뮤지션의 결정판이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고정관념을 깨며 다양한 형식과 여러 장르의 음

악을 시도했던 밴드인 퀸(Queen) 4인 멤버들은 워낙 개성이 뚜렷한 인물의 집합소인 것처럼 멤버들 간의 불협화음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퀸(Queen)은 당시 여타 밴드와 달리 4인 멤버들이 독특하게 각기의 다른 음악적 취향을 가진 작곡가들로 구성돼 있어 음악양식이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개성이 강한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이 창의적이고 기존틀을 깨어 지향하고자 했던 음악적 광폭행보는 개인보다는 팀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참고문헌>

- 그레그 브룩스 외. 2009. 『프레디 머큐리: 낯선 세상에 서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노래하다』. 서울: 뮤진트리.
- 라이 토마스 외. 2019.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를 외친 퀸의 심장을 엿보다』. 서울: 미르북컴퍼니.
- 레슬리 앤 존스. 2015. 『프레디 머큐리: Queen 예술적 상상력의 르네상스』. 서울: 다빈치books.
- 알폰소 카사스. 2019. 『프레디: 퀸의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짧고 아름다운 평전』. 서울: 심플라이프.
- 오웬 윌리엄스. 2019. 『보헤미안 랩소디 공식 인사이드 스토리북: 영화의 감동 그 너머』. 서울: 온다.
- 정유석. 2018. 『퀸: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퀸 디스코그래피로 보는 퀸의 역사』. 서울: 북피엔스.
- 해리 도허티. 2019. 『퀸(Queen): 불멸의 록그룹 퀸의 40주년 공식 컬렉션』. 서울: 미르북컴퍼니.
- “Brian May.” <https://namu.wiki/w/%EB%B8%8C%EB%9D%BC%EC%9D%B4%EC%96%B8%20%EB%A9%94%EC%9D%B4>(검색일: 2018/09/18; 2018/10/23; 2018/11/20; 2018/12/01).
- “Freddie Mercury.”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968> (검색일: 2018/06/20).
- “Freddie Mercury.” <https://namu.wiki/w/%ED%94%84%EB%A0%88%EB%94%94%20%EB%A8%B8%ED%81%90%EB%A6%AC>(검색일: 2018/08/12; 2018/08/28; 2018/09/23).
- “Freddie Mercury's complex relationship with Zanzibar”. BBC(검색일: 2018/07/28).
- “Heritage award to mark Queen's first gig.” bbc.co.uk(검색일: 2019/02/12).
- “John Deacon.” <https://namu.wiki/w/%EC%A1%B4%20%EB%94%94%EC%B D%98>(검색일: 2018/08/27; 2019/01/13; 2019/01/18; 2019/01/28).
- “John Deacon.” https://en.wikipedia.org/wiki/John_Deacon (rjatorldf

- (검색일: 2018/11/23).
- Jump up to: a b c d e "Queen Logo." Famouslogos.net(검색일: 2018/04/28; 2018/07/25).
- Jump up to: a b c d e f g h David. Roberts. 2006. *British Hit Singles & Albums*. London: Guinness World Records Limited.
- Jump up to: a b c d e f g Joel Whitburn. 2006. *The Billboard Book of Top 40 Hits*. Billboard Books.
- Mark Hodgkinson. 2004. *Queen: The Early Years*. Omnibus Press.
- Mark Hodgkinson. 2009. *Queen: The Early Years*. Omnibus Press.
- "Roger Taylor." <https://namu.wiki/w/%EB%A1%9C%EC%A0%80%20ED%85%8C%EC%9D%BC%EB%9F%AC>(검색일:2018/08/13; 2018/09/16; 2018/09/23).
- "Roger Taylor." <https://youtu.be/OgEb6OnC75c>(검색일: 2018/09/20).
- Sutcliffe, Phil·Hince, Peter(CON)·Rock, Mick. 2009. *Queen: The Ultimate Illustrated History of the Crown Kings of Rock*. Voyageur Press.
- "Queen band." [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https://en.wikipedia.org/wiki/Queen_(band))(검색일: 2018/05/18; 2018/08/12; 2018/11/12; 2019/01/21; 2019/01/24; 2019/01/25; 2019/01/28).

투고일 : 2019년 2월 15일 · 심사일 : 2019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21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를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집권당』, 『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 of the 4 members of the British rock group Queen

Chung, Joo-Sh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four main vocalists, including Freddie Mercury, of the legendary rock group Queen, whose movie <The Bohemian Rhapsody> has generated a “Queen Syndrome” all over the world, and is widely shared by nearly 10 million viewers in Korea. In today’s era of cultural content, this paper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rsonality and character in the sense of storytelling for the four Queen members who left charismatic voices and beautiful pop music harmoni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 will focus our research on the members’ psychological and human factors for the popularization of rock music, but I will apply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each member has been born and lived in, as well as the factors of family relations, such as parents. Queen is a band that has performed throughout the world for about 20 years, from the early 1970s to the birth and disappearance of a rock group. In sum, the four members of Queen, who have strong personalities, showed various musical possibilities by combining completely different genres such as acafellla, ballad, opera and hard rock, depending on their taste and imagination, and achieved legendary fame that transcended generations by displaying excellent skills in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The four personality and characters, the rock group Queen and its main vocal Freddie Mercury, were the feet of association calculated by correlation from internal to external influences.

Key words : British rock group Queen, Personality, Character, Queen Syndrome, Bohemian Rhapsody, Freddie Mercury